

〈특별기획〉

윌리엄 페티 경의 생애

윤기중*

요약

페티 경의 업적은 세 분야인데 첫째는 영국의 Cromwell 공화정체시대 아일랜드의 압수된 토지조사사업이고, 둘째는 의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기계공학 분야이며, 셋째는 경제와 통계에 관한 것들이다. 둘째 업적은 Royal Society 역사자료에 일부 수록되었을 뿐,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위 책은 세 번째 경제와 통계에 관한 업적 가운데 여러 석학들의 검증 평가를 거쳐 Charles Henry Hull이 편집 발행한 것이다. 본고는 *The Economic Writings of Sir William Petty* (1899)의 서문에 수록된 *Petty's Life*를 번역한 것이다.**

페티 경은 의학, 해부학, 아일랜드 토지조사를 담당한 행정가로서 그리고 토지 매매와 신용투기로 1687년 세상을 하직할 때 1만 5,000파운드의 연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가이다. 또한 창의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17세기 영국의 대표적 지식인 중 한 사람이다.

이 전기는 위의 Hull이 여러 전기를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에 수록된 문헌목록은 위 책의 문헌목록(pp. 632~652) 가운데 인용된 32편의 문헌이다.

핵심 주제어 : 윌리엄 페티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대한민국학술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우편번호 120-749, kjyoon@base.yonsei.ac.kr

** Augustus M. Kelley로부터 서면으로 서문번역 허가를 받음.

편집인 주 : 페티 경의 경제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그의 대표적인 문헌의 서문을 번역하여 학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게재한다. 참고로 *Commentari Academiae Scientiarum Imperialis Petropolitanae* (1738)에 실린 Bernoulli의 라틴어 논문 *Specimen Theoriae Novae de Mensura Sortis*가 영문 *Exposition of A New Theory on the Measurement of Risk*으로 번역되어 *Econometrica* (1954)에 게재되었고, *Ergebnisse eines Mathematischen Seminars* (1938)에 실린 von Neumann의 독일어 논문 *Über ein Ökonomisches Gleichungssystem und eine Verallgemeinerung des Brouwerschen Fixpunktsatzes*가 영문 *A Model of General Economic Equilibrium*으로 번역되어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45)에 게재된 적이 있다. 모두 동일한 취지 하에 번역·게재되었으며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였다. 본 학술지에서도 원문에 충실한다는 정신 하에 17세기 문헌과 문장,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을 존중하였으므로, 본 학술지 편집방침과 다소 다르게 편집하였다.

페티 경¹⁾은 1623년 5월 26일 월요일 햄프셔 주 롬지(Romsey in Hampshire)에서 넉넉지 못한 옷가게 집 아들로 태어났다.²⁾ 페티 경이 고사연구가 아우브리(Aubrey)에게 전한 자세한 소년시절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직업을 갖기 전까지 그의 어린시절의 취미는 기술자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한다. 예시하면 대장간의 대장, 시계수리공, 목수, 가구 만드는 목수 등의 작업을 각각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켜보는 것이었다.³⁾ 12살 때는 어설피른 라틴어로 그들이 하는 작업을 아는 척하기도 했다. 그리고 16살이 되기 전에 고급 그리스어, 수학, 항해술을 익혔다고 한다. 아마도 14살 때 당한 불의의 사고가 그를 일찍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다. 영국상선의 선실 사동으로 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불행하게도 발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선원들은 어린 페티를 프랑스 노르망디의 까안(Caen)에서 가까운 해안에 상륙시켰다. 갑작스런 불행을 겪게 된 페티는 그의 불운을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 공부로 보충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그 도시의 신부가 도와 주어 라틴어 공부는 물론 그는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다.⁴⁾ 여기서 페티 경은 전에

1) 1) 페티 경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인쇄물은 1691년 Anthony Wood의 *Athena Oxonienses*이었다. Aubrey가 Wood를 위하여 페티 경이 작성한 비망록을 입수했고 이것을 근거로 작성한 인쇄물은 페티 경의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자서전 작성은 1769년의 *Tracts Chiefly Relating to Ireland*에도 포함되어 있다(6). 그리고 페티 경과 Boyle 경의 각종 서간문집이 1744년(24)과 1770년에 *Capel Correspondence*로 출판되었다. 또 1813년에 Aubrey 전기에 포함시켜 출판되기도 했다(26). 뒤이어 1813년에 Evelyn의 일기(27)과 1825년에 Pepys일기(30)가 출판되었다. 1851년에는 페티 경의 「토지조사역사」(8)가 아일랜드 고고학회에서 편집 발행되었다. 끝으로 1895년 Edmond Fitzmaurice에 의해서 미간행 사문서를 인용한 「페티 경의 생애」(28)가 출판되었다. 이것은 완전하고 진실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페티 경의 행적과 사상의 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Fitzmaurice 공이 인용한 사문서는 페티 경과 Robert Southwell((1)pp. lvi~lvii) 간에 주고받은 편지이다. 페티 경에 관한 이야기는 그 편지에 잘 나타내고 있다. 나는 그의 생애에 관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기술했고 또 다른 유력 인사의 글도 인용했다.

2) 역자주 : 페티 경이 태어나던 1623년은 이조 중엽 임진왜란 이후 어지러울 때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던 해이다. 영국에서도 1603년 Elizabeth 여왕이 가고 Scotland 국왕 James 6세가 영국의 청을 받아 영국의 국왕 James 1세로 즉위, England, Scotland 그리고 Ireland를 통합하는 Great Britain 건설의 야심을 품고 출발했으나, 영국에 대한 많은 원한이 있었고 또 왕권신수(The Divine Right of Kings)설을 신봉 의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주교제를 고집하는 종교갈등으로 어지러운 정세이었다. 1625년에 James 1세가 죽자 아들 Charles 1세가 즉위했으나 아버지와 같은 정책으로 어지러웠다.

3) [26]보다 [25]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부수적으로 프랑스어까지도 아주 잘 공부할 수 있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프랑스 상급선원들에게 항해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영국을 방문하려는 신사들이 라틴어로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다이어몬드나 루비와 같은 비싼 보석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하찮은 저가의 낫쇠제품과 투명한 유리제품 거래로 학비를 벌었다. 1643년 그는 영국에 귀국하자마자 몇 개월간 해군생활을 했다. 이 때가 바로 국왕과 의회 간의 시민전쟁기간이었다.⁵⁾ 페티 경은 화란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영국의 청교도가 귀국하여 찰스 1세의 국왕군에 대항하는 화란의 청교도 피난민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이 때 페티 경은 화란의 우티리히트(Utrecht)와 라이든(Leyden)⁶⁾ 그리고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 의학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1645년 6월 잉글랜드 북부 나세비(Naseby) 전투에서 의회군이 대승하여 국왕군이 전의를 잃고 난 후 그해 11월 페티 경은 해부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파리를 결심했다. 파리에는 메센(Mersen) 신부와 뉴캐슬(Newcastle) 후작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해부학자 안드레스 비살이우스(Andreas Vesalius, 1614~1664), 당대의 대철학자인 동시에 특히 *Leviathan* (독재군주론)으로 유명한 홉브스(Hobbes, 1588~1679)와 같이 독서회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해인 1646년 페티 경은 롬지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업⁷⁾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었다. 롬지에서 페티 경은 대단히 바빴다. 이곳에서 복사기(instrument for double writting)를 만들어 1647년 3월에 완성, 특허를

4) College는 *University of Caen*을 가리킨다.

5) 역자주 : James 1세 국왕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독점권을 방매하자 1624년 의회에서 국왕의 독점권제한법을 성립시켜 전제정치에 항의하자 1642년 8월 국왕군이 거병한다. 의회는 「민병조례」를 채택하고 의회군을 조직 대항하다 노팅엄에서 격돌, 국왕군이 대패한다. 이어 1643년 9월 Olive Cromwell이 의회군을 동부군으로 재편 강화시킨다. 대륙에서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가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 간에 30년전쟁이 있었으나 국왕군은 이 30년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의회군과 전투만 하다 대패하여 1646년 국왕 Charles 1세가 Scotland로 망명한다.

6) 라이든대학(University of Leyden)에서 1644년 5월 26일 그의 나이 21세 생일에 의학부 학생으로 정식 입학이 허가되었다. *Album Studiosorum Acd. Lugd. Bat.*, 350.

7) 아버지 Anthony Petty는 1644년 7월 14일 매장되었다. Romsey교구등록계의 Latham의 기록 대영박물관의 자료. Addl.Ms.26, 775, to.10b.

받아 17년간 특허권 독점에 대한 특허료까지 받았다. 만약에 복사가 좀 늦게 완성되었다면, 11월에 런던에 갈 기회가 있어 그곳에서 그 특허권⁸⁾을 팔았다면, 더 좋은 특허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회상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특허독점⁹⁾에 관한 다음 문제를 구상하지만, 그는 발명이라는 것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페티 경은 런던에서 명사들이 모이는 몇 개 클럽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들 회원, 즉 당대 잉글랜드의 유일한 서사시인 밀톤(John Milton, 1608~1674)의 친구인 작가 하트리브(Samuel Hartlib, 1600~1662)에게 연구해야 할 페티 경의 계획¹⁰⁾을 작성해 보내주는 일로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케 했다. 이러한 일들은 하트리브의 연구의욕을 북돋아, 중단되었던 「무역사」¹¹⁾ 저술을 계속하게 했다. 옥스퍼드대학교가 의회군에 의해서 재정비되고 있을 때,¹²⁾ 페티 경은 런던에서 옥스퍼드로 옮겼다. 그는 곧 옥스퍼드대학교 해부학 교수 Clayton의 조교수가 되었고, 1650년 1월 Clayton 교수의 뒤를 이어 해부학 교수가 되었다. Clayton 박사는 페티 경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하여 일부러 교수직을 사임했다. 얼마 안 되어 페티 경은 의사(Doctor of medicine)가 되었고 부레세노스대학(Brasenose College)의 정교수가 되었다.¹³⁾ 1650년 12월에는 하녀가 자기자식을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옥스퍼드대학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Ann Green을 소생시키는 임상에 참여하여 페티 경의 명성이 한층 높아졌다.¹⁴⁾ 동시에 부레세노스대학의 부학장으로 선출되었

8) [15]의 취지문 참조.

9) [1] pp. 74~75.

10) [2].

11) [24] 6장 p. 76, [13] p. 164, [1] pp. 652~655.

12) 역자주: 1648년 4월 스코트랜드에 투항했던 찰스 1세가 스코트랜드 군 지원으로 잉글랜드로 남침하여 내전은 재연되었다. 이해에 장기의회도 장로파를 비롯한 온건파, 즉 국왕의 권력회복을 시도하는 의원들이 군부에 의해서 추방되어 의회는 53명만이 잔류하게 되어 잔류의회(Rump Parliament)라 했다.

13) 왕립 의과대학과 페티와의 관계가 이 때 시작되었다[1]. p. 27.

14) 영어와 라틴어로 기술한 이 사건의 해명서는 「*News from the Dead*」라는 소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650년과 1651년에 Robinson에 의해서 Oxford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제2판은 Morgan사의 *Phanix Britannicus* pp. 233~248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소책자의 판권은 확인되지 않았다. Wood는 Richard Wakins Clark의 「*Life and Time of Wood*」의 p. 1과 p. 155에 근거해서 작성했다. 그러나 1707년에 저술한 Dearham은 이 저자가 Ralph Bathurst 박사가 참여한 의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주고 Derham의 「*Psycho and Astro-theology*」

고 또 그레섬(Thomas Gresham, 1519~1579)의 재산으로 건립된 Gresham대학의 음악교수를 겸하게 되었다. 이 대학의 음악교수 후보가 되었을 때 런던의 거상인 동시에 페티 경의 친구 그리고 인구 통계의 창시자 그란트(John Graunt, 1620~1674)가 후원자가 되었고 임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옥스퍼드대학교 부레세노스대학의 부학장직은 1659년 8월 9일까지였으며 Gresham대학의 음악교수직은 1660년 3월 8일까지였다.¹⁵⁾ 1651년 4월에 옥스퍼드대학교의 연구처는 그에게 2년간의 안식년과 연간 30파운드의 연구보조금을 주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보조에 의해서 그가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츠마우리스(Lord Edmond Fitzmaurice) 공은 그가 여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 그의 다음 생애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연습과정의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페티 경은 1651년 4월부터 2년간의 안식년과 연구보조금까지 받았으나 안식년이 끝난 1653년 옥스퍼드대학교와 그레섬대학을 떠나게 된다.¹⁷⁾ 1652년 국왕 없는 공화정체인 올리브 크롬웰 정부는 그를 아일랜드 주둔군 의무총감으로 겸해서 부총독과 그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까지 겸하게 했다. 그 후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된 성 조지해협(St George Channel) 건너편, 즉 아일랜드에 대한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페티 경은 약 7년간이나 아일랜드에 살다가 의회군과 정부에 물의를 빚어 헨리 크롬웰의 편지를 받고 1659년 잉글랜드로 돌아온다.¹⁸⁾ 처음 아

p. 1, p. 236 노트에 “나는 이것을 페티가 저술했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저작물 가운데 Hester Ann Green이 암시하는 바는 소생시키는 실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소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5) *Ward's Lives of The Professors of Gresham College*, p. 228.

16) Burroughs 기록부(Register), p. 331.

17) 역자주: 1648년 8월에 망명중인 Charles 1세는 Scotland 군과 제휴하여 England를 공격하여 2차 내전으로 발전했으나 국왕군이 대패하고 국왕 Charles 1세는 포로가 되었다가 1649년 1월 재판에 의해서 처형된다.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그 아들이 Charles 2세로 Scotland에서 즉위 선언했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1649년 8월 국왕파와 가톨릭교도가 동맹하여 의회군에 대항하는 반혁명세력을 형성하고 1641년과 같은 폭동이 재연되었다. 이 폭동 진압을 위해 크롬웰이 1650년 5월 군을 동원하여 아일랜드에 상륙, 반혁명세력을 제압하고 이들 폭도들 소유토지를 몰수하고 폭동진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런던상인과 동원된 장병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토지몰수를 정당화했다

18) 1659년 6월 16일 아일랜드를 떠나 1주일 만에 런던에 도착했다(7). 페티를 소개

일랜드에 군 의무충감으로 갈 때 올리브 크롬웰이 호국경이었으나 그는 1658년에 죽고 그의 아들 리차드 크롬웰(Richard Cromwell)이 호국경직에 있었다. 페티 경이 아일랜드에 도착하기 전인 1652년 8월에 「아일랜드 토지처분법」이, 그리고 1653년에 「토지보상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아일랜드 토지처분법」에 의해서 이미 몰수된 현지인의 토지몰수를 합법화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분배하기로 했다. 이 「토지보상법」의 근간은 첫째 이들 토지를 동원된 군대에 대하여, 둘째 군대의 장비와 군비를 담당했던 런던의 모험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그 외의 많은 군사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분배 방법은 이해 대립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또 토지마다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분할조차 어려웠다. 페티 경은 군의관으로서 담당자들의 토지 분배의 무계획성을 개탄하고 토지정리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정부에 건의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분배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사¹⁹⁾의 필요성을 직감했다. 그는 분배를 위한 토지조사는 위슬레(Benjamin Worsley) 행정장관에 의해서 아주 불충분하고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만족스럽게 조사할 수 있는 계획안과 더불어 완전하게 조사할 것을 겸해서 약속했다. 즉, 1년 1개월 내에 토지를 조사, 지적도까지 작성하여 책으로 제본해서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²⁰⁾ 그 결과 토지 정리의 대업을 위임받은 행정관에 임명된다. 페티 경은 우선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이 때 지적도 작성을 위해 실시되는 토지측량과 그 결과 얻어진 지적도를 가리켜 아일랜드 「토지조사」(Down Survey)라 하는데 이것은 1673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인쇄되었다. 후일 사람들은 당시까지 작성된 지도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이라고

하는 R. Cromwell의 편지는 Ward's *Lives of The Professors of Gresham College*, p. 220 참조하시오.

19) 17세기 아일랜드조사의 주관자가 페티 경이라는 Royal Irish Academy회보(Proceedings, VIII. pp. 39~55)의 W. H. Hardinge 논문 [7]과 Pren dergast의 *Cromwellian Settlement* 그리고 [28]을 참조하시오.

20) 페티 경과 아일랜드내 영국인으로서 극단파에 속한 Worsley와의 싸움은 Fleetwood와 Henry Cromwell 간의 견해차는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페티 경의 확고한 친구가 된 Cromwell은 육군중장 그리고 1655년 토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인 부책임자로서 더블린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페티 경을 불러들여 편을 들어 주었다. Fleetwood는 다음 9월에 영국으로 귀환했다. Sanchez까지 가세한 Worsley와의 관계는 토지조사종결 이후도 계속되었고 이것은 페티 경의 이야기에 서만 논의된다. 행정장관의 능력도 높이 평가되었다[7] pp. 320~321.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얼마 후 페티 경은 토지조사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토지정리국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그러나 토지정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저항과 아일랜드 주둔군 장군 라르콤(Thomas Larcom) 경과 행정장관 위슬레와의 마찰로 페티 경에 대한 공격은 의회까지 비화되어 비난을 받다가, 호국경 올리브 크롬웰의 두터운 신임으로 그에 대한 공격은 도리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의 아일랜드 처음 거주기간은 아일랜드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토지조사사업의 추진은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호국경 크롬웰의 신임이라는 행운이 뒷받침하고 또 그의 초기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처음 페티 경의 계획서는 많은 논의 끝에 1654년 12월 11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조사 완료는 1655년 2월부터 13개월로 2개월간 연장되었다. 페티 경은 몰수한 토지의 측량단위와 기록을 40페취(forty perches)²¹⁾를 1인치로 하고 수익성이 있는 토지와 없는 것을 장교와 사병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도 합의했다. 군대에 분배될 토지의 평가는 시민들의 평가보다는 군인들 자신의 평가를 중시했다. 그는 조사에 착수하고 지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말단행정구역 단위로 일반이 사용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즉 몰수된 것이건 안 된 것이건 간에 구역 전체에 대해서 조사, 지적도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1656년까지 군 장병들에게 분배될 토지조사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페티 경은 대금지불과 그의 공채상환을 위해서 위원회에 제안했다. 페티 경의 작업은 군을 대표해서 수행한 것이고, 그 결과 얻어진 자료는 토지분배위원회의 필요 불가결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또 분배대상자들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²²⁾ 그러나 행정장관 위슬레는 자질구레한 약점을 들어 페티 경의 계획안에 반대했다. 페티 경의 견해는 결점으로 생각할 수 없고 도리어 이러한 반대와 이의는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정장관 위슬레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납득시켰다. 막강한 힘을 가진 행정장관 위슬레

21) Perch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길이 단위 또는 면적단위이다. 1 perch의 길이는 5.03미터이므로 40페취(forty perch)이면 201.2미터가 된다. 201.2미터를 1인치로 표시한다는 것은 $7.921.26((100\text{cm} \times 201.2)/2.54\text{cm}(1\text{inch}=2.54\text{cm}))=7921.26$ 분의 1로 축소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perch의 면적은 25.3평방미터이다.

22) [7] p. 119.

와 라르콕 장군(경)이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페티 경이 이 사업은 만족스럽게 추진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 이유는 이 대사업에서 어떤 결점과 손실이 발견된다 해도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보수지불이 지연되는 것은 짜증스럽기는 하나 결국 약속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페티 경은 자기 권한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과 저항은 감수하지만 자기가 토지조사사업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한 임금 지불 지연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657년 3월까지 연기하는 양해만을 구했다. 페티 경의 작업완료 약속 기간은 1657년 12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체불된 임금이 지불되면 페티 경의 소임은 다하게 된다.²³⁾

군용지에 대한 토지조사의 완성이 페티 경의 아일랜드에서의 사업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656년 7월 7일 페티 경은 그가 조사한 몰수 토지를 장교와 사병에게 분배하는 「분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그의 참모 중 한 사람인 빈센트 구킨은 당시 의회출석을 위해서 런던으로 떠나고 없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토지분배계획안에 불만을 갖는 군관계 인사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토지분배에 대한 의견 제시를 주저하고 있었다.²⁴⁾ 하는 수 없이 페티 경 자신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업의 실무를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다른 위원들은 페티 경이 독선적이라 하여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 분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페티 경의 불쾌감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분배에 관한 사업은 그에게 위임된 사항, 즉 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모략과 그 모함에 대처하는 일까지 위임된 사항이다.²⁵⁾ 일은 단순하게 처리되어 1657년 2월 군에 대한 토지분배가 완료되었다. 잠시 페티 경이 위슬레의 뜻에 따라 몰수된 토지의 반은 모험가를 위해서 분배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토지조사에 의거한 분배는 1658년 5월에 런던에서 최종적으로 모험가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해 분배가 지연되고 있었다. 행정부장관의 인내심은 모험가들의 어물거리는 행동에 분개하여, 그들 모험가들의 요구사항을 포기케 하는 방향으로 선회, 포기권고위원회

23) [1] p. 6.

24) [7] p. 208.

25) [13] pp. 116~117.

구성을 요청했다. 페티 경이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런던의 모험가들이 더블린의 소식을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익히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블린에서 접한 소식이란 페티 경이 군대를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고소 당한 것과 같이 모험가들을 기만하려고 했다는 주장들이다. 사실 페티 경은 모험가들과 같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받았다.²⁶⁾ 즉, 호국경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권한을 호국경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페티 경이 의기양양하게 런던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 번째 편지를 준비했던 더블린의 페티 경 정적들은 흥분상태였으나 페티 경은 도리어 그들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냉정하게 응답했다.²⁷⁾ 이 두 번째 편지는 모험가에게 보내진 것인데 그 내용은 토지조사가 부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런던의 모험가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티 경은 위원회의 서기로서 그리고 행정부장관의 후광으로 그의 직책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군용지에 대한 파오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양해되어 있었다. 모함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사전준비되어, 이 편지는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차단되었고 또 호국경의 차남 헨리 크롬웰도 관심을 갖게 했다. 호국경 크롬웰의 페티 경에 대한 신임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크롬웰은 이런 문제는 7명의 장교로 구성된 「분배위원회」의 모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페티 경은 아일랜드에 있었던 일연의 모함을 잠재우기 위해 1658년 12월 말까지 런던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많은 모함을 안고 더블린으로 돌아왔다. 이제까지 겪은 것 가운데 가장 최악의 폭풍우 속에서 신은 페티 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이것은 그의 변명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다. 페티 경의 요청에 의해서 재산관리국장, 회계국장 그리고 성실성과 재주가 좋기로 이름난 제오피리스(Mr. Jeffryes)가 추가로 「분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제오피리스는 정부의 고관으로서 능력있는 적절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군부에서 제기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이었다. 처음 임명된 위원들은 페티 경에 대하여 새로운 공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앞으로의 사업을 축소시키자는 것뿐이었다.

아일랜드 주둔군 장교들이 의견표현을 머뭇거리는 것은 결코 까닭 없는 것은 아니었다. 1658년 9월 올리브 크롬웰 호국경의 병사에 따를 권력공

26) [7] p. 248.

27) [7] pp. 258~262.

백기였기 때문이었다. 잉글랜드 군부내의 의회파는 아들로 그 뒤를 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리차드 크롬웰(Richard Cromwell)을 호국경에 임명하도록 했다. 페티 경은 평생 동안 크롬웰 가의 확고한 지지자인 동시에 리차드 크롬웰과도 가까운 친구관계이기도 하다. 또, 페티 경은 크롬웰의 후광으로 아일랜드 웨스트루 선거구에서 국회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페티 경에 대하여 수뢰 의혹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모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모략은 제론 산케이(Hierome Sanchey) 경²⁸⁾이 하원에서 페티 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정부장관 그 자신에게 폭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을 더블린의 장교들이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산케이 경의 계략²⁹⁾이라는 내용의 뱀필드(Bampfield) 의장³⁰⁾의 편지가 페티 경에게 전달되어 알게 되었다. 그 날로 페티 경은 하원에 출석하여 절제된 태도로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회답했다. 책임은 뚜렷하지 않았고 증거가 없었다. 군용지의 분배작업이 그렇게 어렵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적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몇몇 친구를 얻을 기회도 있었다. 페티 경은 종종 그 자신에게 닥쳐온 심리적 고통을 견디어 내는 것은 과거에 견디어 낸 것보다 한층 더 심했다. 즉, 그들은 페티 경에게 정직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 불필요한 악담을 모두 구사했다. 페티 경은 이 모두를 선명하게 밝힐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심사에 대한 답변태도는 현명했으며 모든 의문점은 해명되었다. 그 뒤 하원법사위원회에서 산케이 경은 페티 경에 대하

28) H. C. Fournals, pp. VII, 612. Sir Hierome Sanchey(또는 Sanchey를 Sankey로 쓰기도 함)라는 사람은 Salop 목사의 아들로 1641년 Cambridge대학을 졸업했으며 철학이나 논리학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해 축구부와 곤봉부에 속해 있었다. 그는 그의 가운을 기병대복과 바꾸어 입고, 곧이어 의회군의 대령이 되어 종군했다. 1649년 3월 의회방문단이 Oxford대학에 가서 군대에서 나와 영혼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청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Oliver Cromwell이 대학을 방문하고 그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1649년 말 그는 다시 기병대의 지휘를 맡게 되었고 아일랜드에서 많은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다시 반복하여 아일랜드의회 의원이 되었고 Richard Cromwell로부터 기사작위까지 받았다. 1659년 8월에 그는 그의 여단 병력을 영국으로 귀환시켜 Lambert부대와 합류시켜 군과 잔여의회 간의 논쟁에서 탁월한 논객이 되었다. 1660년 12월에 그는 왕권에 반대하는 폭동음모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30명의 공화파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하원이 1661년 5월 24일 사면과 재산몰수의 환원을 청원했다. 그 후 그는 일반의 기억에서 사라져 살다가 1685년 아일랜드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7] pp. 299, 301.

30) [7] pp. 289~301.

여 과거의 중상과 비난과는 달리 특별히 높은 책무의 일을 수락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페티 경은 그에 대한 답변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나에 대한 조사보고가 현저한 위법과 거짓으로 일관되었다.”³¹⁾는 요지로 답변했다. 하원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그의 죄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그 다음 날인 4월 22일 리처드 크롬웰이 의회를 해산하고 페티 경은 원했던 변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의회가 해산되자, 페티 경은 아일랜드로 서둘러 돌아갔다가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 그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Fleetwood 장군에게 갔다. 그가 큰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 크롬웰 호국경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Richard Cromwell)이 Fleetwood 장군에게 가도록 권했다.³²⁾ 산케이 경은 공화파의 반동파에서 중요 인물이며 페티 경의 현재의 입장은 유리했다. 즉, 7월 12일 잔여의회(Rump)에 상정된 새 법안은 페티 경에 대하여 중죄, 즉 사기, 신용 파기 등 몇 가지 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잔여의회는 신속하게 그들이 제소하기 이전에 아일랜드의 총독에게 회부했다. 공식적인 해명은 막혔고 여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페티 경은 1659년 7월 13일³³⁾에 산케이 경과 의 싸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인쇄했다. 그리고 다음 해 이것을 보완하여 약 200쪽³⁴⁾에 달하는 토지조사와 분배작업 내용을 편집하여 그의 직무에 대한 복명과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여러 사람과 당파들이 뒤엉켜 시기와 질투, 혐오에서 야기된 사건들을 기술했다. 1659년 10월경 더 확대해서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토지조사의 역사,³⁵⁾ 그 동안 일방적으로 당한 모함에 대한 해명자료도 포함시켰다.³⁶⁾

페티 경과 관계되는 명사클럽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가 런던³⁷⁾에 도착한 후, 바로 입회³⁸⁾하게 되었다. 이 회원들은 자연철학과 다른 인

31) [13] pp. 70~75.

32) H. Cromwell이 Fleetwood에게 가도록 한 것은 1659년 6월이었다. Thurloe, VII, 684.

33) [14].

34) [13].

35) [7]. 이것은 1851년 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36) [13] pp. 60~61.

37) Ante, p. xiv.

38) [1], p. 23.

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광범위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Bull's Head Tavern이나 또 가드다드 하숙집에 모여 토론하곤 했다.³⁹⁾ 페티 경은 이 모임의 초창기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일찍부터 대학에 초청되었다.⁴⁰⁾ 또 의회에 의해서 옥스퍼드대학이 구조 개혁을 할 때도 페티 경은 초청되었으며 여기에는 Goddard, Wallis, Wilkins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존경할 만한 원로들로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페티 경을 포함하여 아주 정렬적인 사람들이었다. 옥스퍼드에서의 첫 모임은 약학과 숙소에서 가졌다. 이유는 약리실험에 편리하고 또 Wilkins의 숙소⁴¹⁾는 페티 경이 아일랜드로 옮겨간 후에 참석하기가 편했기 때문이다. 런던에 잔류한 회원들은 잠시 동안 왕정복귀될 때까지 그들 생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산만하게 모임을 가졌었다. 왕정복귀 뒤에 옥스퍼드분회의 저명한 회원들이 Bull's Head에서 그레삼대학(Gresham College)으로 옮길 것을 원했다. 그곳은 자연철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한 곳이었다. 이들은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 1632~1723) 경과 로랜스 룩크(Lawrence Rooke)⁴²⁾의 기하학 강의 후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1660년 11월 26일 화요일 렌의 강의를 끝나고 물리수학의 원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기관과의 접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 때 페티 경은 실험적 지식⁴³⁾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과 논의하는 것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전에 그 외국석학들의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초청해서 그 내용의 설명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페티 경은 외국논문집에 몇 차례 논문을 발표했다.⁴⁴⁾ 드디어 1662년 7월 15일 「자연과학지식 발전을 위한 왕립학회(Royal Society for Improving of Natural Knowledge)」 창설을 합의하고 페티 경이 그 발기위원으로 지명되었다.

39) Hearne가 편집한 John Wallis 박사의 *Account of some Passages in his own Life*와 연대기(1725) vol. 1, p. cl.xiv.

40) Masson, *Life of Milton*, 111. 665, [28] p. 15.

41) Wallis, Loc. cit.

42) Ward, *The Lives of the Professors of Gresham College*, pp. 91~96.

43) Birch, *History of The Royal Society*, 1. p. 14.

44) [12] pp. 7, 12, 13, 15, 19, 55~65, 83, 124.

페티 경의 유명한 2중선복 선박의 계획은 쌍동선(Calamaran)과 같은 것으로서 민첩하고 전천후적이고 또 안전면에서 탁월한 선박이었다. 이 선박을 건조 진수했는데 학회 창설 이전에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었다.⁴⁵⁾ 이 선박의 정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세 척의 내륙 수로용 선박을 건조했다. 첫 선박은 1662년 더블린에서 진수했는데 그 배는 항구에서 다른 어떤 배보다 돋보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편선 Holyhead 호를 진수했다. 이 우편선은 국왕의 소유로 좌우 회전이나 속도가 아주 민첩했다. 페티 경은 이 선박을 잉글랜드로 옮겨왔다.⁴⁶⁾ 이곳에서는 친구 페피스의 초청으로 요크(York) 공이 관람했는데 요크 공의 감탄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국왕과 해군장관(Lord High Admiral)까지 그 선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했다. 찰스 2세(Charles the Second)⁴⁷⁾는 우수황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는 페티 경의 정력적 사업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국왕은 처음에는 돌팔이 의사라고 비정하게 비웃기도 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티 경이 시작품으로 새 2중선복 선박을 건조, 진수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⁴⁹⁾ 그 선박은 패속선으로 아일랜드 해협에서 진수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계에서 사라졌다.

런던의 대 화재(1666년)로 런던에 있는 그의 몇 채의 가옥은 소실되었고 또 아일랜드 법정에서 그에 대한 불리한 결정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⁵⁰⁾ 몇 년간 선박건조에 주력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나이 44살이 되던 해였다. 페티 경은 1682년 더블린에서도 런던에서와 같은 더블린 철학학회(Dublin of Philosophical Society)를 창설할 것을 생각했다. 페티 경은

45) 페티가 1662년 왕립학술원에서 발표한 「선박운송의 원리와 사상」은 Anthony Wood가 제안한 것인데 이것은 1691년 Hale 명의의 *Account of Several New Invention*은 *Thoughts on the Philosophy of Shipping*와 같은 것으로 인쇄되었다. 이 *Account of Several New Invention*은 페티 경의 「사상」으로 나타난 영국학술원회원의 극단적인 가치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수로용 소형 선박의 지나친 기대를 재연하게 한다면 학술원회장인 Brouncker 공이 왜 경고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경고의 내용은 그 논문을 정독하고 보면 지나치게 신비스럽다. 그래서 출판을 금한다는 것이다. [26] II, p. 147. Pepys가 Wood에게 1682년 6월 13일 보낸 편지는 Bodleian Library에 Rawlinson Ms.A 194, f279에 분관.

46) 다른 배를 한 척 더 건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47) 프랑스로 망명했던 찰스 2세가 1660 왕정복고로 귀국시켜 국왕으로 즉위케 했다.

48) [30] 1664년 2월 1일자 일기.

49) [27] 1675년 3월 22일자 일기.

50) [1] pp. xxiv~xxv.

불운의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2중선복 선박의 건조계획을 정력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뭉살스러운 정도로 비쳤다. 그러나 그의 새 선박의 완성은 좀 명쾌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그가 이야기했던 선박은 기대했던 정도의 훌륭한 것이 못되어 실망을 안겨주게 되자 페티 경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기계와 선박의 제작에 전념하기보다 책을 쓰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⁵¹⁾ 이 때가 그의 나이 60살이 되던 해였다.

왕정복고는 페티 경에게 불운을 가져오게 했다. 1660년 1월 2일자⁵²⁾ 왕실편지에 의하면 1659년 5월 7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는 그 소유권이 보호되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정착과 설명법(Act of Settlement and Explanation)」에 의해서 국왕명의로 확인된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몰수된 토지는 일반토지 소유주와 같이 페티 경은 1662년의 사면법정의 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페티 경은 사면청원이 모두 기각된 것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⁵³⁾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티 경은 아일랜드의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국왕의 허락으로 기사작위⁵⁴⁾를 받게 되었다. 아일랜드 토지조사국장을 역임했다.⁵⁵⁾ 그 당시 아일랜드 토지조사국장 사무실의 일 때문에 페티 경은 런던에 더 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는 동안 이브린(Evelyn)이 아는 바로는 페티 경이 Wikins 박사와 현미경물리학자인 동시에 실험 철학자인 후크(Robert Hooke, 1635~1703)와 같이 Surrey의 Durdeus를 떠나 기계발명을 위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⁵⁶⁾

51) 1682년 10월 18일 Southwell에게 보낸 편지 [28] pp. 256~257. 그가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아직 알 수 없었다.

52)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661년 2월 [19] 1661년 3월 25일 케리의 불모지에 페티 경이 정착했고 편지의 내용은 “왕정복고에 대한 그의 노력에 관해서 국왕폐하에게 깊은 애정과 능력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요지. [21] p. 70.

53) [1] pp. 199, 601, p. 398.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의 결백을 입증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페티 경은 2중선복 선박을 건조했다. 또 더블린의 생명표 저술에 착수했다.

54) 기사(Knight)가 서작된 것은 1661년 4월 11일이다.

55) [28] p. 107. 그러나 Hardinge에 의하면 분명히 윌리엄 경의 친척 John Petty가 1660년 왕정복고부터 1667년 2월 13일까지 토지조사 국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 제임스 쉐(James Shaen) 경이 그 뒤를 이었다.

56) [30] 1665년 8월 4일자 일기. 페티는 1665년 전에 한동안 의사로 개업하고 있었다.

1666년 봄에 페티 경은 청구법원의 소송일과 더블린에 거처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갔다. 페티 경의 세 번째 체류기간에 전적으로 국왕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다. 페티 경은 군의 관으로서 그리고 몰수토지의 조사관으로 더욱이 그곳의 거주자로서 그곳 생활을 즐겼다. Mount Mangerton의 케리지방의 50,000에이커⁵⁷⁾나 되는 대 토지소유자로서 그리고 경륜이 높은 정부 공무원으로서 청구법원에서 심리중인 자기의 죄목을 우선 방어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아일랜드에서 그의 죄목은 아주 불분명하다. Essex 공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진실은 너의 것이다. 아일랜드의 토지는 도깨비상자 속에 있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⁵⁸⁾ 불법몰수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폭로에 의해서만 인지되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일로 대두되었다. 그런 까닭에 채소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일까지 페티 경이 담당하게 되었다.⁵⁹⁾ 페티 경은 다행히 불필요한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페티 경은 타협을 거절하고 그의 재임중에 그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도의 정력을 1667년 그의 괴로운 송사방어에 주력했다.⁶⁰⁾

법률적 연옥의 화근에서 벗어나자마자 페티 경은 다시 미루어 두었던 일을 착수했다. 그의 주거지는 더블린에 정하고⁶¹⁾ 대부분의 시간은 켄매어(Kenmare)에서 보냈다. 페티 경은 서서히 프로테스탄트의 산업정착촌을 건설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페티 경은 혼신의 주의를 기울였다. 1년

57) [26] p. 11, 142.

58) 1674년 3월 28일 Harbord에게 보낸 편지내용, [16] p. 201.

59) [3] p. 195.

60) 말년에 페티 경은 무역업을 지도한 것 같이 보인다. 이 일에 대하여 그는 심하게 자신을 꾸짖었다. 1673년 그는 Henry Ingoldsby 경과 같이 아일랜드에 숨겨진 토지에 연간 임대료를 공유지양도를 국왕 찰스 2세에게 청원했다. Essex는 공유지양도라는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일은 더는 없다. 그래서 호국경과 정착민 간에 재산 문제로 생긴 갈등은 해소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정착민이 그 재산에 관해서 결코 정당하고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의 기회는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사람들이 떠맡는 부담과 분노를 견디기보다는 도리어 호국경과 연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도리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1673년 5월 4일 쉬프테스버리(Shaftesbury)에게 보낸 편지내용, [16] p. 82.

61) 그의 친구 Sir Hardress Waller의 딸 Elizabeth와 1667년 6월 7일 결혼했다.

에 두 번씩 물불을 가리지 않고 켄매어 구석구석을 돌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⁶²⁾ 이 사업의 전망은 고무적이지 못했다. 아일랜드인들은 적대적이었다고 켄매어 주변 사람들이 전했다. 사실 그곳은 현지인을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⁶³⁾ 돌이 많고 벌거벗은 곳에 항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화물선적에 대단히 좋은 항구가 되었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상쇄시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포구에는 연어가 많고 우거진 산림은 목탄을 싸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페티 경은 철과 주석 광산을 개발하고 목탄, 철 그리고 주석을 공급해 아일랜드인의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했다. 프로테스탄트 정착인들의 산업이 융성하는데 대하여 다른 곳에 사는 가난한 이단자들은 켄매어의 정착촌을 부러워했다.⁶⁴⁾ 더욱이 켄매어는 충분한 자본의 뒷받침과 저명인사들이 주도하는 절약습관에 의해서 찰스 2세 치하에서 아일랜드의 정착민은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또 부의 축적을 과시하고 있었다. 제임스 2세(James the Second)⁶⁵⁾ 즉위는 정착민들에게 아일랜드를 둘러싼 보석을 잃은 느낌이었다. 이 사람들의 폭력은 폭력정책으로 대응했으며 페티 경의 많은 실험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⁶⁶⁾

아일랜드 번영을 위해서 페티 경의 정책보다 더 발전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었다. 국왕의 사업과 관련하여 페티 경의 이익은 더욱 증대되는 것 같았다. 즉, 페티 경은 왕정복고 후 아일랜드의회 의원⁶⁷⁾이 되었고 정착법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페티 경은 아일랜드 축산물의 잉글랜드 수입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원으로서도 유명하다.⁶⁸⁾ 또 페티 경은 초

62) 페티 경이 Graunt에게 1672년 12월 24일로 보낸 편지, [28], p. 234.

63) 1671년 3월 17일 Peter Bronsdon은 해군장관에게 보낸 편지내용, [22] p. 135, 184.

64) [5] p. 263.

65) 1685년에 찰스 2세가 죽자 찰스 2세의 동생 요크(York) 공이 국왕 James 2세(James the Second)로 즉위했다. 요크 공은 아일랜드 총독이었으나 가톨릭교도라는 이유로 국왕계승불가를 의회에서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즉위하게 된다. 그의 형 찰스 2세도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교도이었고 국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귀국할 때 도바해협에서 프랑스 루이 14세와의 밀약 설로 내정이 어지러웠다.

66) [23]. pp. 108~110.

67) [17]. pp. 225~231.

68) [1]. pp. 161~162.

법적일지라도 해사재판관에 취임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에서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그의 생애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아일랜드 조세수입에 관한 그의 관심은 지대했다. 1662년 초 그는 아일랜드의 현재상태에 대해서 논의할 때면 자주 「조세론」에 관해서 언급했다. 이 주제의 이론적 관심사는 후일 현실적인 문제에 언급되고 있다. 즉, 1668년 아일랜드의 조세징수관리의 과오책임은 아일랜드총독 오몬드와 재무장관 앵글래시의 책임 추궁문제로 발전했다.⁶⁹⁾ 농민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일정액의 정액 조세를 국고에 수납하는 것이다. 농촌의 납세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성공적이었다. 그해 성탄절로부터 7년간, 즉 1662년부터 1668년까지 연간 219,500파운드를 조세로 수납할 것을 국왕과 합의했다.⁷⁰⁾ 새로운 농촌의 조세징수 청부인은 자진납부제도에 대해 불만이었다. 농민을 수탈하는 지주나 조세징수 청부인 그리고 재무부 다같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제도라고 반대했다.⁷¹⁾ 특히 지주들은 과거에 조세까지 포함된 지대를 농민으로부터 받아 상당부분을 지대로 그리고 최소의 부분만을 조세로 대리 납부했다. 농민이 조세를 직접 납부하게 되자, 지주에게 납부되는 지대가 과거에 비해 적어지고 지주의 납부해야 할 조세는 많아지자 지주들은 조세가 준 지대라고 주장하며 조세저항을 선동했다. 페티 경은 실제 지주이면서도 농민편에서 농민과 같이 징세청부인(farmer)제도⁷²⁾ 철폐를 위한 법적 투쟁에 착수했다. 추밀원 사무총장인 사우스웰(Robert Southwell) 경과의 편지에서 수년간에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태도는 분명했다. 즉, 인간적인 증오의 상당 부분이 아일랜드

69) [22], 1667~1668, pp. 532~543.

70) [29], p. 1, 57.

71) 1670년 9월 30일 6개월간의 결손은 72,953파운드였고 부채는 245,510파운드였다 [22], p. 54.

72) 역자주: 징세 청부인제도는 우리나라 고려조시대와 이조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이다. 공세(貢稅)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이 있는데 상공은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별공은 지방별 특산물에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 별공의 공물은 방납(防納)이라는 납공 청부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 납공 청부자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공물을 선납하고 그것을 추후에 납세자로부터 징수한다. 그러면 징수 청부인은 선납한데 대한 이자와 품질과 가격차를 이유로 농민으로부터 과다 징수하게 된다. 징세당국은 다수의 농민을 상대할 필요 없이 징세 청부인만을 상대하게 되고 또 일시에 수납시키는 당국의 편의 때문에 이 제도가 성행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청부인이 지주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면 지주는 농민에게 모두 전가시켜 수탈하게 된다. 따라서 농민 각자가 납부하면 지주의 과다징수액이 면제되기 때문에 납세액은 경감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는 농민의 직접납세를 반대하게 된다.

드 조세의 불공평과 그가 지난날 체험했던 과거의 편견이 더해져 그의 태도가 강경해졌다. 1668년 이 제도가 끝날 때까지 적의 진영에서 전쟁하듯 강경하게 해결을 위해서 법적 투쟁을 계속했다. 그가 50살이 되던 해인 1673년 런던으로 발길을 돌리고 1675년 성탄절에 새 농촌을 위하여 개혁할 것에 대한 기초를 구상하면서 새 농촌을 위한 입찰자가 되었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라네라(Ranelagh)와의 수치스러운 계약이 대체되고 과거의 잘못된 조세제도의 철회를 합의했다.⁷³⁾ 그리고 쉐(James Shaen) 경은 오몬드(Ormond) 공이 해임될 때까지 아일랜드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⁷⁴⁾ 잠시 페티 경은 런던에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옛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왕립학회이사가 되었다.⁷⁵⁾

1676년 여름⁷⁶⁾ 페티 경은 거처를 다시 한 번 옮겼다. 이 곳은 1680년 봄 런던 방문을 위하여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 곳에서 5년 동안 거주했다.⁷⁷⁾ 이 기간에(1676~1680년) 「아일랜드의 정치해부」, 「정치산술」 그리고 「더블린의 생명표 관찰」을 저술했다.⁷⁸⁾ 페티 경은 이 무렵 전례 없이 의기등등한 징세 청부인들과 새로운 싸움에 말려들었다. 페티 경의 주적인 세금징수 청부인과 꼭 같은 재무장관 라네라를 법원 모독으로 투옥시킬 수 있었다.⁷⁹⁾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던 페티 경은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반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찬송가 라틴어 음율의 104장을 번역했다. 그 찬송가 번역물은 장문의 불만스러운 심경을 담은 편지와 같이 사우스웰과 당시 해군장관인 동시에 유명한 Diary 저자인 페피스(Samuel Pepys, 1633~1703)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번역은 곧 다시 폭발하게 된다. 그는 외친다. 즉, “주여 54살의 남자가 36년간이나 하지 않던 짓을 15살 소년이 고칠 수 있는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해군성과 위원회

73) 1675년 9월 28일 Essex가 법무장관에게 보낸 편지, *Capel Correspondence*. pp. 403~404.

74) [20] pp. 451~464.

75) [11], [26] p. 144

76) 페티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Ent 박사가 1676년 7월 1일자 편지에 적고 있다.

77) 페티 경이 런던으로 오는 도중 Chester에 도착한 것은 1682년 6월 5일. [28] p. 250.

78) [1] p. 122, 235, 236, 480.

79) [28] pp. 169~173.

서기들과의 불화를 초래하게 했다.⁸⁰⁾

Lord Essex를 대신해서 페티 경이 호언장담하는 의견⁸¹⁾은 아니었지만 1677년 오몬드 공의 아일랜드 총독 재임명으로 조세 청부인과의 분쟁을 잠재우게 했다. 그 해 11월에 페티 경에게 위협이 다가오는데 병이 회복된 뒤였다. 페티 경이 하는 일이 평탄하지는 못했다. 페티 경은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착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시기에 관해서 페티 경은 지위향상을 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제시된 조건은 최근의 어려운 심경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페티 경은 그의 양심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왕실특사에게 약간 감사할 뿐이었다.⁸²⁾ 1679년 이 때 템플(William Temple, 1628~1699) 경은 아일랜드 추밀원의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페티 경은 추밀원 개혁을 잉글랜드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당의 추밀원 개혁과정에서 페티 경이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되었다.⁸³⁾ 페티 경이 추밀원위원이 된 것은 그의 신분을 격상시키는 것이므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된다. 페티 경은 잠시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인들을 동원시켜 사람들의 반대의사를 잠재웠다. 그리고 그 뒤 페티 경은 런던을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분명히 추밀원의 지위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⁸⁴⁾ 그러나 찰스 2세는 개신교도들을 회담하여 추밀원의 해산을 꾀하고 있었다. 페티 경은 아일랜드를 위한 아일랜드 의회의 의원자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페티 경은 지위가 없는 것은 영혼⁸⁵⁾이 없는 세계와 같다고 생각하고 세사상을 대단히 두려워했다. 그의 인생의 제2기는 사양기라 할 수 있다. 아마도 페티 경은 과거와 같이 자신에게 반문했다. 즉, “뚱쇠로 만든 반쪽 왕관은 1페니 가치밖에 안 된다. 이제까지 얼마나 걸치레를 했는가. 추밀원 의원은 마치 스

80) 1667년 4월 3일 Southwell에게 편지로 전했다. [28] p. 172.

81) “나는 국왕폐하를 믿고 있다. 페티 경보다 더 귀찮은 사람은 이곳 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다.” Essex가 1673년 5월 4일자 편지로 Shaftesbury에게 보냈다. [17] p. 83.

82) [28] p. 155.

83) [20] pp. 494~495.

84) Ossory가 Ormond 공에게 1680년 6월 5일 편지에 “페티 경은 나에게 그가 당신의 허락없이 하원의 의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시다.”라는 요지였다. [18].

85) [28] p. 245. 페티 여사가 1680년 8월 8일자로 Waller에게 보낸 편지내용.

템프로 찍어 가입시킨 조합원과 같은 것이 아닌가”.

1680년 3월 22일⁸⁶⁾ 페티 경이 아일랜드로 돌아오자마자 페티 경과 옛날 세금징수 청부인과의 논쟁이 재연되었다. 즉, 1682년 6월 페티 경을 런던으로 불러들이는 무모한 처사에 대하여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 때 아일랜드 세수개편을 위한 추밀원개원에 앞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페티 경은 과중한 에일맥주에 대한 주세부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세를 과세 수납한 징수 청부인의 상납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분명히 페티 경은 그 자신이 세금을 직접 수납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다행히 그는 누구에게나 그 제도 도입의 찬성을 간청하지도 않았다. 페티 경의 숙적인 제임스 쉐 경은 이제 조세징수 청부인에 의한 상납금 가운데 국왕세수는 연간 80,000파운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템플 경은 말하기를 “상납금은 사실상 인상되었다. 국세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 국왕세, 즉 왕실세가 인상되었다”⁸⁷⁾고 말했다. 그러나 Lord Essex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템플 경은 아일랜드 총독에 재임된다는 호기심에 흐뭇해했다. 그것은 쉐 경의 덕택으로 생각했다. 페티 경은 마술에 걸린 것 같이 또 관념적이고 기발한 미친 짓으로 표현했다.⁸⁸⁾ 재무장관은 조세수입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현금수납, 즉 상납금 계획안을 채택했다. 1683년 여름 페티 경은 아일랜드로 돌아와 심한 실망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Kerry로 위안삼아 여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년간⁸⁹⁾이나 마음에 품었던 실험문제를 재개할 것을 결심하고, 우선 2중선복 선박을 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더블린 철학회 창립⁹⁰⁾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몇 편의 논문까지 썼다.⁹¹⁾

제임스 2세의 즉위소식이 전해지자 페티 경은 1685년 초여름 런던으로 돌아왔다. 왕실의 새 대신들은 그들의 전임자들보다 더 반가워했다. 페티

86) 징세청부자는 재무부에 납부를 미루고 있었다. 1679년 2월 18일자 Danby가 Ormond 공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은 만약에 아일랜드의 세금징수의 현행청부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현행 관리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요지였다. [21] p. 50.

87) [21] Ranelagh는 Shaen이 그 요청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Ormond 공에게 1681년 7월 12일 편지로 알렸다.

88) 1682년 9월 16일 Ormond 공이 페티 경에게 설명했다. [28] p. 252.

89) [1] p. xxiii.

90) *Dublin University Magazine*, pp. xviii. 489.

91) [10], [9], [8].

경은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했던 아일랜드의 행정개혁의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즉, 상납금 제도의 개편, 징세 청부인 감독 그리고 아일랜드 통제국이 자기의 관할하에 둔다는 제도⁹²⁾에 관한 계획은 아일랜드 조세국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개편되는 것 같아 보였다. 페티 경은 국왕이 아일랜드의 이런저런 일에 관해서 의논했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자문을 받기도 했다.⁹³⁾ 현재의 신 체제하에서 페티 경의 관심사가 현행 공공업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제임스 2세의 온유한 성격 때문에 당시의 정책방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의 혼돈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잉글랜드가 프랑스 루이 14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페티 경이 호소하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지도적 국가로 잉글랜드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전 「정치산술」 저서에서 페티 경은 잉글랜드가 유럽에서 지도적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물질적 가능성을 논증했다. 즉, 그것은 프랑스와 비교할 때 부와 인구 그리고 군사적 역량에서 잉글랜드가 보다 우세하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같은 문제로 페티 경은 다음의 논문에서 「정치산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⁹⁴⁾라는 것을 국왕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논술 과시했다. 이러한 페티 경의 노력은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페티 경의 관심사는 제임스 2세 국왕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페티 경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국내에서 강요된 타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672년 국민정서의 통일을 위한 조치로 제임스 2세의 신교의 자유선언(The Declaration of Indulgency)을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경향이 었다. 페티 경은 잉글랜드와 특히 아일랜드⁹⁵⁾에서 프로테스탄트의 관심은 물질적 우월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문으로 그리고 구두설명⁹⁶⁾으로 국왕을 일깨워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로마 가톨릭교를 신봉하는 국왕의 현실적인 신교자유선언은 국민정서나 페티 경의 견해⁹⁷⁾와 일치될 수 없었다. 그래서 페티 경은 가톨릭의 더블린 대주교

92) [1] p. 480, 485, 486.

93) [1] p. 546, [6].

94) [1] p. 452, 502, 503, 522, 524.

95) [3] pp. 156, 128~144, [1] pp. 561, 590~596.

96) [28]. p. 280.

97) [1] pp. 70~73, 262~264, [28] pp. 234~243, 270.

Tyrconnel(일명 Talbot라고 함)⁹⁸⁾의 영향력하에 있는 아일랜드의 극단주위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내의 잉글랜드신교도 사이에 퍼져 있는 불안의 파장과 그리고 MaCarthy가 Kerry주의 주지사로서 아직도 재임중이라는 소식은 페티 경으로서 아일랜드의 신교도들과 같이 위협이 닦쳐온다는, 즉 하나의 협박의 소식이라 할 수 있었다. 페티 경은 Kenmare가 폐허화된 것을 보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거주할 것인가에 고심했으나 그곳의 거주 여부는 분명치 않았다. 수개월 동안 페티 경은 기분이 우울했다. 페티 경은 발의 종기 때문에 대단히 절룩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성 앤드리우일(St. Andrew Day)의 왕립학회 연례만찬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만찬이 끝나기 전에 귀가했다. 페티 경은 다리의 종기 때문에 1687년 12월 16일 피카테리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⁹⁹⁾

1667년 6월 7일 트리니티 일요일(Trinity Sunday) 페티 경은 옛 친구 하드리스 월러(Hardress Waller) 경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했다. 대단히 예쁘고 솔직한 여자이며 또 반짝이는 갈색 눈¹⁰⁰⁾을 가진 페티 여사는 남편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페티 경과 같이 화려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단순했다.¹⁰¹⁾ 그들의 결혼생활은 아주 행복했다. 페티 경이 이브린(John Evelyn, 1620~1706)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녀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브린이 페티 경에게 보낸 편지에 “페티 당신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아요.”라고 적고 있다. 즉 “그녀는 예쁘고 사려 깊은 여자라는 것 외에 재치 있는 여자이기도

98) [1] p. 577, 591.

99) 화란총독이던 신교도 오렌지 공이 군을 이끌고 잉글랜드 남부에서 상륙, 적의 환영을 받으며 런던에 입성, William 3세 그리고 그의 부인 Mary가 Mary 2세로 공동 왕위에 즉위하고 권리선언에 이어 권리장정(Bill of Rights)으로 법제화 명예혁명으로 이어진다. 페티 경은 종교문제로 인한 풍운의 역사 속에서 한평생을 행정가로 의사로 또 저술가로 지냈다.

100) [26] p. 142.

101) 그에 대해서 잘 아는 나는 그의 우울한 궁궐에서 살았을 때 그는 그 자신 그가 여기에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즉, 우울한 빛의 가구에 대한 가치나 취향도 없고 또한 연정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여사는 대책없이 인내할 수 있었고 또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태만했다. 그리고 도리어 인격과 철학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그는 말했을 것이다. 다른 많은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 [27] 1675년 3월 22일자 일기.

하다.”는 페티 경의 판단을 이브린이 뒷받침했다.

페티 경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또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다음의 세 사람은 페티 경에 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선 교사연구가인 아우베리(John Aubrey, 1626~1697)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페티 경은 적당히 감아 올린 갈색의 좋은 머릿결에 상당한 미남이다. 그의 눈은 기러기 잿빛에 심한 근시안이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때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인다. 사람들은 페티 경이 굉장히 좋은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또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의 눈썹은 두텁고 검고 일직선이며 머리는 대단히 크다.” 당대 작가인 동시에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이브린(John Evelyn)은 페티 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페티 경은 실험에서의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일과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다. 공장의 관리와 무역이나 농장의 관리와 개량하는 수완은 그와 견줄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국왕이라면 나는 그를 최소한 제2의 참모로 기용할 것이다.” 또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의 수호자인 윌리엄스(Roger Williams, 1603~1684) 경은 페티 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매사에 익살스러운 농담과 쉬운 말로 대화하여 친밀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예절이 밝은 사람이다. 페티 경은 성서를 끼고 설교할 때는 엄숙한 전통적 목사 같고 한편에서는 신교도 같기도 하다. 또 광신적인 Quaker교도 같이 보이기도 한다. 수도사나 천주교 신부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의 점잖은 거동과 음성과 말의 강약의 변화는 그의 다양한 모습이 엿보이게 한다. 이러한 페티 경의 모습에 가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또 여러 사람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다. 그가 좋은 감성의 소유자인 동시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심각한 이야기에 빠져들지도 않고, 동료들에 빠져드는 일도 없고, 다만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빠져든다. 나의 주인 Ormond 공은 페티라는 친구를 알게 되어 끝없이 기뻐했으며 그의 인품과 재주에 감탄했다. 곧 그는 왕과 도지사의 실책으로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된다. 페티 경이 아무 직책이 없는데 대해 Ormond 공은 아주 민감했다. 그 Ormond 공은 아일랜드의 해군대령이었고 페티 경이 대하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페티 경은 미래지

항적이었고 진실을 숨기거나 즐거워하는 편도 아니다. 드디어 페티 경의 설교는 바보 같은 주제로 함몰되고 그가 평생 여러 사람들과 즐겨 놀던 회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에게 설교를 더하게 했다. 페티 경은 법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 그 이유는 그와 가까웠던 모든 재사들을 뒤로하고 먼저 갔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상의 재주 있는 사람은 못 보았다. 내가 아는 여러 사람 가운데 그는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뿐이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자기와 말해 본 사람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바로 페티라 한다.'

◆ 참고문헌 ◆

- 1) Petty, Wiliam (1899). *The Economic Writings of Sir William Petty*. Together with the Observations upon the Bills of Mortality more Probably by Captain John Graunt edited by Charles Henry Hull. Vol.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_____ (1648). *The Advice of W. P. to Mr. Samuel Hartlib. For The Advancement of Some Particular Parts of Learning*. London, Printed Anno Dom.
- 3) _____ (1691). *The Political Anatomy of Ireland*. With The Establishment for that King-dom When the Late Duke of Ormond was Lord Lieutenant. London: Printed for D. Brown, and W. Rogers, at the Bible without Temple-Bar, and at the Sun Over-against St. Dunstans Church, Fleet-street.
- 4) _____ (1681). *Quantulumcunque Concerning Money*.
- 5) _____ (1690). *Political Arithmetick*.
- 6) _____ (1769). *Tracts: Chiefly Relating to Ireland*, Printed by Boulter Grieson, Dubin, MDCCLXIX.
- 7) *History of the Cromwellian Survey of Ireland* (1851), A. D. 1655~1656, Commonly Called "The Down Survey." edited, from Manuscripts in the Libraries of Trinity College, the King's Inns, Dublin, and the Marquis of Lansdowne, by Thomas Aiskew Larcom.

F. R. S., M. R. I. A., Etc, Major, Royal Engineers. Dublin: for the Irish Archaeological Society. MDCCCLI.

- 8) "A *Miscellaneous Catalogue of Mean, Vulgar, Cheap and Simple Experiments*," (1685), *Drawn up by Sir William Petty, President of the Dublin Society, and by Him presented to that Society.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xiv, no. 1667, pp. 849~853, 28 January.
- 9) "Some *Queries whereby to Examine Mineral Waters by the Learned Sir William*," (1684),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xiv, no. 166, 20 December, pp. 802~803.
- 10) *Experiment to be Made Relating to Land-Carriage, Proposed by the Learned Sir William Petty Kt.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xiv, no. 161, 20 July, 1684, pp. 666~667.
- 11) *The Discourse Made before the Royal Society The 26. of November 1674* (1674), Concerning the Use of Duplicate Proportion In Sundry Important Particulars: Together with a New Hypothesis of Spring or Elastique Motion. By Sir William Petty, Kt. Fellow of the Said Society. *Pondere, Mensura, & Numero Deus omnia fecit: Mensuram & Pondus Numeres, Numero omnia fecit.* London: Printed for John Martyn, Printer to the Royal Society, at the Bell in St. Paul's Church.
- 12) *An Apparatus to the history of the Common Practices of Dying. By Sir William Petty. In the History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the Improving of Natural Knowledge* (1667), By Tho. Sprat. London, Printed by T. R. for J. Martyn at the Bell without Temple-bar, and Allestry at the Rose and Crown in Duck-lane. Printers to the Royal Society. M DCLXVII, pp. 284~306.
- 13) *Reflection Upon Some Persons and Things in Ireland, by Letters to and from Dr. Petty: With Sir Hierom Sankey's Speech in Parliament* (1660), London, Printed for John Martin, James Allestreya, and Thomas Dicas, and are to be Sold at the Bell in St. Paul's Church Yard.
- 14) *A Brief of Proceedings between S. Hieron Sankey and Dr. William*

- Petty. With The State of the Controversie between them Tendered to all Indifferent Persons* (1659), London. Printed in the Year. M.DC.IX.
- 15) *There is Invented an Instrument of Small Bulk and Price. [end] Saint Peters Church in Cornhill*, In the British Museum Copy the Blank is Filled in with a Pen, 'His Lodging Next Doore to the White Boare in Lothbury.'
 - 16) *Essex Papers, I*
 - 17) *History of Irish Parliament*, 96.
 - 18) *Seventh Rept.* Hist. MSS. Com., 7396b.
 - 19) *Carte Papers*, XLII. 492, Bodleian Library.
 - 20) *Carte, Ormond, II*
 - 21) *Fourteenth Rept.* Hist. MSS., Com. pt. 7.
 - 22) *Cal. C. S. P. Dom.* 1671.
 - 23) *History of England*, Vol. III., ch. XII.
 - 24) *The Works of The Honourable Robert Bolye* (1744), to Which is Prefixed the Life of the Author, edited by Birch, 5 Vol.
 - 25) *Aubrey's Live Included in the "Bodleian Letters"* (1813), edited by Walker and Bliss.
 - 26) Aubrey, John (1898), *Brief Lives*.
 - 27) Evelyn, John (1818), *Diary*.
 - 28) Fitzmaurice, Edmond (1895), *Life of Sir William Petty: 1623~1687*, Chiefly from Private Documents, London, Murray.
 - 29) Howard, *Revenue and Exchequer of Ireland*.
 - 30) Pepys, Smuel (1825), *Diary*.
 - 31) Wallis, John (1723), *Account of Some Passage in his Own Life*, Hearne ed. of Longtoft's Chronicle, Vol. I.
 - 32) Wood, Anthony (1691), *Athena Oxonienses*, 2 Vols.